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29

2025. 3. 5.[수]

김현국 국장 010-2581-2487 / 최성희 선임비서관(김태선 의원실) 02-784-2135

김토일 선임비서관(이학영 의원실) 02-784-8051

김석태 선임비서관(박홍배 의원실) 02-784-1460

〈을지로위, ‘100만 이주노동자 시대,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 개최〉

- 을지로위, 이학영, 김원이, 김태선, 박홍배, 박희승 의원 공동주최
- 국내외 노동자·지역사회 상생 방안, 조선업 미래경쟁력 확보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이하 ‘을지로위원회’)는 3월 4일(화) 국회에서 ‘100만 이주노동자 시대,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이학영, 김원이, 김태선, 박홍배, 박희승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이 국내 노동시장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외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규진 현대중공업노조 정책기획실장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김성훈 현대중공업 동반성장실 상무 △김정아 울산동구청 비정규직센터장 △박주현 법무부 체류관리과 과장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이주노동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가 조선업 이주노동자 쿼터를 30%로 확대하고 이를 상시화 한 것에 대해, 내국인 숙련 노동자들의 이탈, 조선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현대중공업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선산업내 이주노동자 증가 및 E-7 비자 확대에 따른 내국인 노동자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우리사회는 100만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인 만큼 이주노동자의 처우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내외 노동자가 우리 경제와 산업현장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